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79-130
<https://doi.org/10.29212/mh.2021..120.7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

- 독꼬 전투(1966)를 중심으로 -

심호섭**

1. 머리말
2. 한국군 전쟁 수행과 중대전술기지의 운용
3. 독꼬 전투: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전술적 성공과
딜레마의 탄생
4.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이상과 현실
5. 맺음말

* 이 논문은 Hosub Shim, "The Forgotten Army: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Conduct in the Vietnam War, 1965-1973," University of Kansas 박사 학위 논문, 2020, 103-123쪽(3장 2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2021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군사학술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조교수(shimhosub@gmail.com),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네 분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머리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대표적이고 독특한 전략·전술개념 한 가지만 꼽자면 단연 중대전술기지일 것이다. 1966년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한국군 한 개 중대가 연대급 규모의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을 막아낸 독꼬 전투는 한국군 중대 전술기지 신화를 창조했다.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중대전술기지가 한국군 민사심리전의 기본 전술이자 평정작전¹⁾을 성공시킨 핵심 요소였다는 채명신 사령관으로 대표되는 주월한국군의 공식 견해를 충실히 따른다. 각각의 선행 연구는 분석 범위와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서 중대급 기지의 운용이 갖는 의미를 모색했다는 점에 그 공통점이 있다.²⁾ 다만 기존 연구만으로는 중대 기지의 운용이 전쟁의 다양

1) 베트남 전쟁에서의 평정(pacification)은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얻는 전반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정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베트남 정부가 북베트남과 베트남의 위협으로부터 남베트남 국민과 국가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데 있었다.

2) 가장 먼저 최용호의 연구에서는 중대전술기지를 한국군의 민사심리전의 기본적인 전술로 꼽는다. 최용호,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05. 한국군 파병 초창기 대대장이었던 박경석은 중대전술기지를 한국군의 독자적 전술로 손꼽으면서, 이를 통해 한국군이 미군과 달리 평정작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박경석,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59~240쪽. 한편 정지환의 연구 역시 중대전술기지가 한국군 평정작전 성공의 핵심요소였다는 주월한국군의 공식 견해를 따르면서, 한국군의 대게릴라전 수행을 위한 작전개념이 중대전술기지로 구체화 되었다고 평가한다. 정지환,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대게릴라전 연구 - 중대전술기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29호(2010), 187~211쪽. 비교적 최근의 박상혁의 연구에서도 한국군의 성공적인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COIN)은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을 기반으로 수행됐음을 주장하면서 중대전술기지의 평가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박상혁,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대반란전 전략과 중심』, 『군사연구』 137호(2014), 39~65쪽.

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히, 실제 전장에서 기지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독꼬 전투에 대해서는 위태선의 연구가 유일하며, 여기서는 독꼬 전투를 수도사단 1개 중대가 북베트남군 1개 대대를 격퇴시킨 한국군의 대표적 전투로 평가한다.³⁾ 다만, 이 연구에서는 중대급 기지 운용이 전투에 미친 영향과 한국군의 승리요인과 같은 독꼬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중대전술기지 운용을 통해 얻고자 했던 이상과 실제 전장에서의 현실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중대전술기지의 우수성을 증명한 독꼬 전투 분석을 포함하여 한국군의 기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주월한국군 교리에 따르면 중대전술기지는 민사작전 위주의 평정작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세를 위한 발판도 되어야 했다. 이는 어느 하나의 양상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베트남 전쟁은 공산주의의 팽창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데올로기의 충돌,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대립, 민족해방 및 혁명전쟁과 같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는 전쟁이었다. 그만큼 전쟁 양상도 복잡했다. 크게는 북베트남 정규군에 의한 정규전과 베트남에 의한 비정규전이라는 두 가지 전쟁 양상이 공존했다. 따라서 남베트남과 그 동맹군에게 위와 같은 전쟁의 두 가지 양상 모두에 대비하는 작전 수행은 쉽지 않은 과업이었고, 특히 외국군으로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비정규전 위주의 평정작전 수행은 쉽지 않았다. 미군의 실패가 이를 잘 보여준다.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을 통해 주월한국군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3) 위태선, 「독꼬 전투의 고찰」, 『군사』 14호(1987), 27~55쪽.

모두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려 했다. 정규전 차원에서 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에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 공세적인 전투작전을 위한 전초기지로써의 역할도 부여했다. 비정규전의 차원에서 주월사령부는 중대전술기지를 평정작전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다. 병력은 기지를 통해 현지에 주둔시켜서 민사작전과 소부대 전투를 수행하면서 평정 지역의 확장을 시도하려 했다. 평정 지역의 확장이 한국군 전쟁 수행의 전략이었기에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적 수단이었다. 즉, 한국군에게 중대급 기지의 운용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양상이 혼재하는 남베트남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월한국군은 전쟁 기간 동안 그 이상을 유지했던 것인가? 실제로는 위의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충족시킨다는 이상은 결코 달성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파병이 장기화되고 전쟁의 상황이 달라져서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도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가 한국군 기지의 운용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진다. 만약 중대전술기지가 전쟁에서 원래 이상대로 운용되지 못했다면, 한국군이 이의 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중대전술기지로 대표되는 주월한국군의 전략·전술의 분석을 통해, 교리가 가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교리를 운용하는 이들이 갖게 되는 고민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한국군 전쟁 수행과 중대전술기지의 운용

중대전술기지의 건설과 운용은 당시 한국군의 전략 및 작전개념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전술로 알려져 있다.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중대전술기지 운영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술 기지란 주월군의 기본 전략 개념인 분리, 섬멸 및 지역확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술 개념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 내의 적의 활동을 봉쇄하고 적을 포착섬멸하는 동시에 지역적인 안전을 제공하고 월남 정부의 평정 사업을 보호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정부 통제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⁴⁾

마찬가지로 1969년의 『주월군 현황』에서는 전술 기지의 설치 운영이 “분리-섬멸-지역확대”라는 한국군 전략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⁵⁾ 이처럼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에 있어서 베트남 전쟁 수행의 근간이었다. 1965년 10월 한국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도착하면서부터 채명신 사령관은 예하 부대에 중대 규모의 기지를 구축하고 운용하라는 일반지침을 하달하였다.⁶⁾ 그 결과 각 소총 중대는 1966년 3월까지의 약 5개월 동안 책임 지역에 기지를 건설하고, 기지 주변을 수색 및 정찰 그리고 매복하는 형태의 소규모 전투작전을 지속했다.

4)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사이공:주월한국군사령부), 1969, 109쪽.

5)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 현황』, 1969. 12. 31, DA1417325, 국가기록원.

6) 국방부, 『과월 한국군전사』 1-1(서울:국방부, 1978), 266쪽;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서울 : 팔복원, 2006), 180쪽.

중대전술기지는 적의 어떠한 방향으로부터의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편성된 지름 150m 정도의 원형 형태 기지이다. 기지는 외곽과 내곽의 2중 방어선으로 편성되어, 적의 위협이 증가되면 외곽 방어선에서 철수하여 내곽진지에서 계속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외곽 방어선에는 두 명의 병사가 위치하는 참호진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호를 통해 분대장과 소대장이 위치한 진지로 연결된다. 내곽 방어선에는 화기 소대가 위치하여 81mm 또는 4.2인치 박격포 1~2문으로 화력을 지원한다. 이러한 화력 계획과 함께 중대 기지는 특히 야간전투를 대비하여 철조망, 지뢰, 부비트랩과 같은 장애물의 지원을 받게 된다.⁷⁾

<사진 1> 수도사단 1연대 6중대 중대전술기지(촬영일시 미상)



* 출처: 『월남전과 한국』 웹사이트⁸⁾

7) 주월 한국군 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서울:주월한국군사령부, 1974), 715~730쪽.

8) http://www.vietvet.co.kr/technote/read.cgi?board=photo&x_number=1145407196&r_search=%C0%FC%BC%FA%B1%E2%C1%F6&nnew=1

전선의 이동이 빈번한 재래식 정규전과 비교해 볼 때,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작전을 위한 기지(base)의 운용은 일반적이었다.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비롯한 연합군 역시 작전 수행을 위해 기지를 운영했다. 전술 책임 지역을 부여받은 각 군대가 해당 지역의 평정을 위한 대반란전 또는 대계렬라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미군은 그들의 기지를 화력 기지(Fire Base, FB) 또는 화력 지원 기지(Fire Support Base, FSB)로 불렀다. 소모전 전략 속에서 작전적으로는 공세를 취하려는 미 육군에게 기동력과 함께 화력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미군 기지가 지닌 주요 목적과 기능은 ‘탐색격멸(Search and Destroy)’이라는 정규전 형태의 공세적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통상 기지에는 155mm 포 6문을 보유한 한 개 포대가 위치하여 보병의 탐색격멸 작전에 포병 화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⁹⁾

또한 미군은 최초 기지 구축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기지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기지에는 최소 1개 보병 대대가 주둔하여 방어하며, 기지는 스스로 최소 3일 최대 14일까지 적의 공격에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반영구적인 형태로 고안되었다.¹⁰⁾ 이처럼 미군의 기지 운용은 화력 지원과 기지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반란전의 수행에 있어서도 기지는 “적의 공격에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고 보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9) David Ewing Ott, Vietnam Studies: Field Artillery, 1954-1973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pp.55-57.

10) Randy J. Kolton, “Anticipation and Improvisation: The Fire Base Concept in Counterinsurgency Operation,” (Master’s thesi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0), p.13.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¹¹⁾

미군의 기지가 주로 공세적인 정규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한국군의 기지 개념은 정규전 방식의 전투 작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군의 기지는 ‘분리’, ‘섬멸’, ‘지역확대’라는 한국군 자체적인 평정 전략과 이를 위해 작전의 우선순위에서도 적의 섬멸보다는 베트콩과 주민의 분리를 실현하는데 높은 비중을 둔 것에 그 독특함이 있었다.

여기서 한국군의 평정 전략이 연합군 전체의 전쟁 수행 전략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합군의 평정 전략은 탐색격멸과 같은 공세적 전투작전 수행과 함께, 소탕과 지역 확보 및 장악과 민사작전을 병행하면서 남베트남에서의 평정을 달성하는 것이었다.¹²⁾ 1965년 MACV(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 혹은 주월 미군사령부) 사령관인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C. Westmoreland) 대장은 남베트남 평정을 위한 군사작전을 ‘탐색격멸’, ‘소탕’, ‘확보’의 세 가지 유형 및 단계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미 지상군의 병력이 늘어나면서 연합군 내에서도 미군이 탐색격멸 단계에 집중하고, 남베트남군은 주로 소탕 및 확보의 임무를 갖게 되었다.¹³⁾ 문제는 1965년 후반부터 주둔을 시작한 한국군이었다. 미군은 한국군이 미군과 마찬가지로 주로 탐색격멸 작전을 실시하기를 원했으나, 한국군은 이보다는 소탕 및 확보 작전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한국군

11) Field Manual(FM) 90-8 Counter guerrilla Operations (Washington, D.C.:Department of the Army, 1986), pp.7-1~7-2.

12) William C.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s (N.Y.: Doubleday, 1976), 186-188; George L. MacGarrigle, Combat Operations: Taking the Offensive, October 1966 to October 1967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8), pp.7~8, p.152.

13) Ulysses S. Grant Sharp and William C. Westmoreland, Report on the War in Vietnam, as of 30 June 196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91.

파병 초창기에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졌다.

결국, 한국군의 기지 운용은 지역 평정을 위한 연합군 군사작전의 2, 3단계인 소탕 및 확보의 핵심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채명신은 미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군처럼] 탐색하고 격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머무른다”고 설명했다.¹⁴⁾ 이러한 의도에 따라 한국군은 미군처럼 대대급 이상이 아닌 중대급 규모의 기지를 구축했던 것이다. 각각의 중대는 기지를 운용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책임 지역에 대한 평정작전을 진행해 나갔다. 3개 소총소대와 한 개 박격포 소대의 총 175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소총 중대는 전투의 기본 단위로서,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중대를 전술적 차원의 작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여겼다.¹⁵⁾ 따라서 부대를 중대 단위로 쪼개어 책임 지역에 배치한 것은 가능한 한 더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통제하려는 주월한국군의 의도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더해, 연합군의 평정 전략과는 별개로,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은 지역 평정을 위한 한국군 자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군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다는 내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지역 평정과 평정 지역의 확대를 전쟁 수행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정 전략이 분리-섬멸-지역확대로 이루어지기에, 주민을 베트콩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중대 규모의 기지를 해당 책임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대 기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투작전보다는 평정작전 수행에 적합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위치에 건설될 것이 요구되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전술』은 “월남전에서 중요 지형 지물이란 감제고지보다는 도리어 인구 조밀 지역, 생산지, 교통 중

14) “Leading Teacher,” *Newsweek*, no. 69, 10 April 1967.

15) “Strength: ROK Forces in Vietnam,” 주월사, 『주월사병력수준』, 1966.3~1967.6, HB020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

심지, 중요 교량, 병참선 및 중요 군사, 공공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형이다”로 정의한다.¹⁶⁾ 또한 “월남전의 특수성을 고려, 반드시 감제고지를 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지 그 자체 점령은 아무 의의가 없으며 피아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보았다.¹⁷⁾

평정작전을 위해 각각의 소총 중대는 전술 기지를 기반으로 전투작전과 민사작전을 함께 수행하였다. 여기서 전투작전은 기지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주로 수색 및 매복과 같은 소규모의 작전을 의미한다. 기지는 마을로부터 가까운 곳에 건설하거나 마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¹⁸⁾ 이러한 이유로 주간에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소대가 중대 책임 지역의 수색과 정찰을 실시했으며, 야간에는 통상 중대의 3분의 1 병력이 기지 밖에서 매복작전을 했다.¹⁹⁾ 무엇보다도 한국군 전술 기지는 민사작전의 거점이었다. 각각의 중대는 이웃 촌락에서의 민사작전을 수행했다. 이웃 마을과 자매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각 중대는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농사나 가옥의 건설, 의료 및 식량 지원과 같은 민사작전을 수행하였다.²⁰⁾

미군은 그들의 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군의 기지 운용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했다.²¹⁾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러한 의구심은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과 다른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어 있었다. 미군의 관점에서 한국군은 평정 전략 단계에서 탐색격멸보다 소탕 및 확보에 치중했

16)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110쪽.

17) 앞의 책.

18) 육군본부, 『월남전의 전훈』 1 (서울: 육군본부, 1966), 18쪽.

19) 『월남전의 한국군전술』, 120쪽.

20) 『월남전의 전훈』 1, 18쪽

21)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 소개』 (사이공: 주월한국군사령부), 1967, 2장, 8쪽.

기에, 한국군의 기지 운용은 종종 베트남 전쟁에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한국군을 대표하는 전술로서 비판받았다. 여기에는 미군이 한국군은 미군과 마찬가지로 평정을 위한 1단계 작전인 적극적인 탐색격멸을 수행할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를 잘 따르지 않았고,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의 수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한편 전술적인 관점에서 미군은 한국군의 기지가 적의 공격에 취약할 것으로 보았다. 중대급 규모의 전력은 적의 대규모 공격에 쉽게 고립되고 격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중대 규모의 작전에는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제한되며, 중대 규모의 공격작전으로는 전투력 집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²²⁾ 미군은 한국군에게 미군의 방식대로 적 부대 격멸을 위한 정규전 형태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최소 대대급의 기지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채명신은 이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중대가 가장 작은 전술 제대로서 적절한 준비와 방어 수단을 갖춘다면 훨씬 우세한 적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중대전술기지 운용은 한국전쟁에서의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도출된 채명신의 계산된 모험이었다. 중대 기지 설치와 운용에 대한 채명신의 일반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적의 연대규모 공격에 최소한 48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하고 소요되는 탄약과 식량을 비축한다.
2. 기지는 포병의 지원사정권내에 설치하며 기지간의 간격은 탐색과 야간매복으로 보강한다.

22) 채명신, 앞의 책, 180쪽;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84쪽.

3. 기지는 모든 작전행동과 월남당국에 의하여 추진되는 「총락재진」 계획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²³⁾

이처럼 중대 규모 기지의 도입과 운용은 평정작전을 지원하면서도 기지 자체방어에 충분한 최소한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책이자, 전투와 민사작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취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만약 중대보다 작은 소대나 분대 규모로 부대를 쪼개 기지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소대나 분대급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했기에 최소 중대급 규모를 채택했던 것이다.²⁴⁾ 따라서 한국군의 기지 운용은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평정작전에 초점을 두면서도, 필요하다면 적과 싸워 기지를 방어해야 하는 두 가지 기능 모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연한 전술로 평가할 수 있겠다.

중대 기지를 운용한 지 10여 개월 뒤인 1966년 8월, 한국군 중대전술기지는 적의 전면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능력을 증명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독꼬(Ducco) 지역에서 수도사단의 한 개 중대가 기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연대급 규모의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을 격퇴시킨 것이다. 이어서 1967년 2월에는 한국군 해병 중대가 압도적 규모의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을 기지 방어를 통해 격퇴했다. 이 전투가 바로 짜빈동 전투이다. 위와 같은 연이은 성과를 통해 중대급 기지는 방어 면에서의 효용성을 증명할 수 있었고, 한국군 기지가 적의 대규모 공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미군의 전술적 관점에서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1967년 9월 24일, 나짱(Nha Trang)에서 열린 MACV 지휘관

23) 국방부, 앞의 책, 266쪽.

24) 채명신, 앞의 책, 180쪽.

회의에서, 미 제1야전군 사령관 로손(William B. Rosson) 중장은 한국군의 성공적인 기지 방어를 의미 있는 전투 사례로 여기면서, “한국군은 야전에서의 기지 방어에서 그들만의 독특함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²⁵⁾ 채명신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로손은 채명신에게 “다음 지휘관 회의에서 이[한국군 기지 방어-필자]에 대해 발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12월 3일 한·미·월의 연합군 정기 회의에서 채명신은 중대 전술 기지가 한국군의 광범위한 전술 책임 지역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있는 핵심 개념임을 피력할 수 있었다.²⁶⁾

이 자리에서 수도사단 기갑연대장 백명학 대령이 연합군의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중대전술기지에 대해 발표했다. 백명학은 중대전술기지를 운용하는 한국군의 방식이야말로 베트남 전쟁 수행에 적합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군 중대 기지가 정규전과 비정규전 형태의 반란전이라는 두 가지 전쟁 양상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된 개념이며, “이 전쟁에서 이미 상당히 성공적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백명학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강평에서 채명신은 연합군의 지휘관들에게 다시 한번 한국군의 기지 개념을 홍보하면서, “나는 그의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했으며 여기서 제시된 자료들이 앞으로의 작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²⁷⁾ 이에 이 자리에 있었던 미 고위급 장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²⁸⁾

25) Memorandum for Record,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12 October 1967, Reel 11, Papers of Westmoreland (microfilm), The Vietnam Center & Sam Johnson Vietnam Archive(VNCA),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26) 앞의 책.

27) The Tiger Division, “Company Tactical Base Concept,” 1967, 주월사, 『중대전술기지자료』, 1971. 1. 20, HB01685.

28)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VNCA.

일련의 방어작전에서의 성공을 통해 중대 기지의 운용은 한국군의 독특한 전술로 인정받았다. 미 육군 라스무센(Ronald R. Rasmussen) 소령은 『Military Review』에 다음과 같이 한국군의 기지 전술을 소개했다.

한국군이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그들은 그곳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려고 했고, 즉각적으로 정교한 중대 기지를 구축했다. ... 중대기지라는 강점(strong point)으로부터 한국군은 넓은 지역에 대한 수색 정찰과 매복을 실시했으며 이는 주야간 지속되었다.²⁹⁾

동맹군인 미군뿐만 아니라 적군인 북베트남군조차 “한국군은 이틀에서 3일 만에 견고한 기지를 구축했다”며 중대 기지의 운용을 한국군의 전술적 장점으로 여겼다.³⁰⁾

독꼬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중대전술기지 신화가 탄생했고, 한국군 고위 장교단은 더 나아가 미군이 한국군 기지 개념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1969년의 인터뷰에서 채명신은 미군의 화력 기지가 한국군의 기지 개념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말했다.³¹⁾ 수도사단 1연대 3대대장 박경석 중령 역시 위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독꼬 전투 등에서의 성공 이후 한국군의 기지 운용 방식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일반적인 베트남 전쟁 수행에 반영되었다고 말했다.³²⁾ 반면에, 미군의 한 문서에서는 “그들[한국군-필자]이 채택한 방어 전술은 독특한 산물이 아니며, 그들의 성공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다. 그들이 한 것은 미군 고문단들로부터 배

29) Ronald R. Rasmussen, “ROK Operations in Central Vietnam,” *Military Review* 48, no. 1 (1968), p.54.

30) 『주월군소개』 1장, 19쪽.

31)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86쪽.

32) 박경석 인터뷰, 2018년 6월 2일, 자택, 대전, 대한민국.

운 것이며 우리의 교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며, 한국군의 기지 운용이 독특한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³³⁾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위와 같은 양측의 상반된 평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 미군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한국군 중대 기지가 방어에 효과적이었다는 인정이 담겨 있다. 다만 미국 측의 평가는 기지의 방어 능력이라는 전술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며, 평정작전에의 효용성이라는 전략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미군이 한국군으로부터 기지 운용을 배워갔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미군의 기지 운용은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군의 개념과는 달랐다. 기지 운용의 시작 또한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 전쟁 참전 이전인 미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한 1965년 초반부터였다. 오히려 주월한국군이 강조했던 중대전술기지의 미군의 기지 운용 개념과의 진정한 차이는 책임 지역을 통제하고 안정화시키는 평정작전에 그 목적이 있다는 지점일 것이다. 한국군 중대 기지는 단순히 적으로부터 기지를 방어하거나 전투작전을 지원하는 전술적 차원 이상의 목적과 기능을 가져야 했다. 결국, 한국군과 미군은 그들의 전략 및 작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의 기지 전술을 채택했던 것이다.

33)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Military Operations Vietnam Primer: Lessons Learned*, 21 April 1967, 43-44, Folder 1, Box 1, Stephen F. Maxner Collection, VNCA.

3. 독꼬 전투: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전술적 성공과 딜레마의 탄생

한국군은 왜 그들의 책임 지역을 벗어나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대인 독꼬까지 가게 된 것인가? 1966년 6월 24일 미 제1야전군 사령부(I Field Force, Vietnam)는 주월사령부에 미 제25사단의 폴 리버(Paul Revere, 1966년 4~6월 실시) 작전에 한국군 수도사단의 한 개 대대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³⁴⁾ 폴 리버 작전에서는 워커(Glenn D. Walker) 준장이 지휘하는 미 25사단 3여단이 캄보디아 국경 지역 동쪽에 위치한 뵈레이크우(Pleiku)의 방대한 지역에서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에 대한 탐색격멸을 실시했다. 미군은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했다.³⁵⁾

당시 한국군 장교들은 미군의 한국군 부대 파견 요청이 단순히 전투력의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국군 측은 미군의 이번 파병 요청을 한국군이 북베트남 정규군과의 전투에서도 잘 싸울 수 있을 것인지, 한국군의 전투 능력에 대한 시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했다. 주월사 작전참모 손장래 대령은 미군의 의도는 한국군을 ‘은신처’ 밖으로 나오게 하여 한국군의 전투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여겼다.³⁶⁾ 비슷한 맥락에서 수도사단의 작전참모 김기택 중령은 “그 속셈에는 이른바 적의 영역에서 월맹군

34)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41호: 독꼬 전투」 1966, HB00094.

35) John M. Carland, *Combat Operations: Stemming the Tide, May 1965 to October 1966*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2000), p.289;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 1-2권, (서울: 국방부, 1979), 363쪽.

36) 손장래 증언, 1968년 9월 2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17쪽.

을 상대해 보고, 콧대가 낮아지면 중대전술기지 개념 자체를 뜯어고쳐, 미군 측에 좀 더 고분고분해지도록 만든다는 뜻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³⁷⁾

여기에는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 방식을 따르지 않고 대규모 전투작전에 소극적이라는 미군의 불만이 있었다. 실제로 당시 미 제1야전군 사령부는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 대해 한국군이 전술 책임 지역 내의 평정작전에는 성공적이었지만 대규모 전투작전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국군 한 개 부대의 전투 능력은 미군의 절반 정도로 판단된다. 한국군은 방어적인 강점을 구축하여 그들의 책임지역 내 기관과 도로 시설을 확보하는데 월등하다. 공세 행동에서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고 전술적 호기를 포착하려고 하지 않는다. ... 그들은 남베트남과 협조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지역을 확보하거나 지역 내 베트콩을 소탕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에 더해 “한국군의 소극적인 모습이 지난 12월과 1월에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군이 적극적인 공격에 매우 소극적”임을 비판했다.³⁹⁾ 한국군 장교의 증언처럼, 미 제1야전 사령부의 파병 요청은 단순히 병력의 부족 문제가 아닌 책임 지역 내에 중대 기지를 통해 방어와 평정작전에 치중하며 ‘다른 전쟁 (other war)’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미군 측의 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미 제1야전사령관 라슨(Stanley R. Larsen) 중장⁴⁰⁾의

37) 김기택 증언, 1979년 6월 18일, 앞의 책, 375쪽.

38) Message from Nha Trang to COMUSMACV, “Evaluation of ROK Forces,” 25 January 1966, Folder 15, Box 2, Dale W. Andrade Collection, VNCA.

39) 앞의 책.

공식 파병 요청을 받은 채명신 사령관은 미군의 작전지역에 한국군 부대를 보내는 결정에 신중했다. 이 결정 과정에 대해 주월사령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시 캄보디아 국경까지 1개 대대 병력을 파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한, 월, 미 연합작전의 필요성에 의하여 투입하게 되었으며 이 작전 지역이 캄보디아 국경선이고, 또한 월맹 정규군과 최초로 대처하는 작전임으로 만약의 경우 국제적으로 한국군의 위신을 손상케할 우려도 내포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사령부로서는 극히 신중을 기하였으며 현지를 답사하고 적정을 파악하여 희생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과 장차 동해안의 평정이 끝나고 제2단계로 국경선 일대에 배치할 경우를 예측하여 사전에 익숙하다는 의도하에, 이에 협조 이동하였든[던-필자] 것입니다.⁴¹⁾

여기서 한국군이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닌 딜레마를 알 수 있다. 한국군은 최소 희생으로 최대 결과를 얻는다는 이면적 목표하에, 그들의 참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면서도 미군과의 관계에서 실제 이익을 얻기를 지속해서 원했다. 다만 주월사령부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치열한 전투지역으로의 파견이라는 미군 측의 공식적 요청을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한국군은 미국과 남베트남의 동맹국으로서 이들을 돕기 위한 명분으로 베트남에 온 것이며,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채명신은 이러

40) 라슨 중장은 8쪽에 등장하는 로손 중장의 전임자로서, 라슨 미 제1야전군 사령관의 재임 기간은 1965년 8월 1일부터 1967년 7월 31일이며, 로손은 1967년 7월 31일부터 1968년 3월 1일까지 사령관 임무를 수행했다.

41) 주월한국군사령부, 「1966년도 주월한국군 작전개요 및 1967년도 전역계획 보고서」, 1967, HB02338.

한 상황에 대해 “작전지휘권 문제에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에서 절대적인 지지 입장으로 선회해 준 라슨 장군에 대해서는 그의 타당하고 정당한 요청에 대해 반대할 명분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⁴²⁾ 주월사령부는 미군으로부터의 요청과 압박 속에서 동맹국 군대로서 베트남 전쟁 수행에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체면치레 차원에서라도 캄보디아 국경 지역으로 일부 부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투부대의 파견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안 채명신은 미군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마치 베트남에의 파병이 불가피해지자 오히려 선제적으로 참전 의사를 타진하면서 참전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과도 유사하다. 미군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채명신은 실리와 명분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자 했다. 최초로 채명신은 라슨의 제안을 통신장비 등 장비 문제, 사단전술책임 지역 밖으로의 파병에 따른 보급 지원 및 작전 통제의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⁴³⁾

이에 라슨은 미국 측이 새로운 통신장비와 AN/PRC-25 무전기를 제공하고 미 25사단이 한국군 부대의 보급과 군수 지원을 책임지는 대신, 미 3여단이 한국군 파견 부대를 작전 통제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왔다.⁴⁴⁾ 결국 채명신은 이 수정안을 받아들였고, 최초 제안을 받은 지 10일 뒤인 7월 4일, 주월사령부는 미 1야전군 사령부에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한국군을 파견할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⁴⁵⁾ 이어서 7월 6일, 두 개의 포대와 한 개

42) 채명신, 앞의 책, 310쪽.

43)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 1-2(서울:국방부, 1979), 363쪽.

44) 앞의 책, 363쪽.

45) 앞의 책, 367쪽.

의 공병소대로 증강된 수도사단 기갑연대의 3대대가 파견 부대로 선정되어 출발 준비를 하게 되었다.⁴⁶⁾

비록 미군 측과 협조하기로 했으나, 채명신은 이 파견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국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했다. 이에 그는 한국군 부대를 미군의 작전 통제하에 두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파견부대의 운용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수도사단 작전과에서 근무한 서우인 소령은 채명신 사령관의 기준에 맞추어 부대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무척 어려웠음을 회고한다. 미군과 한국군 참모들이 함께 기안한 파병 부대의 작전 및 통제 계획을 채명신은 수차례 승인하지 않았던 것이다.⁴⁷⁾ 채명신은 미군의 작전 통제하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예정인 한국군 부대에 주월사령부의 개념대로 중대전술 기지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주월한국군의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내부 목표 중 최소한의 희생 만이라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중대 기지의 방어 능력에 확신이 있었기에 채명신은 중대 기지를 운용함으로써 한국군 부대의 안전을 도모했다.

7월 9일 아침, 한국군 파견 부대는 그들의 주둔지인 꾸이년(Qui Nhon) 지역을 떠나 독꼬로 이동했다. 제61포병대대 3포대장 김진규 대위는 출발 당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사실 나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 사실 이번 Cambodia 국경으로의 출동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이었다. 예상되는 상대가 월맹 정규군이라는 사실 말고도 240킬로미터의 차량 행군, 흔하지 않는 포대군 형성 등 의의 있는 일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맹호 전우들의 기대는 물론 국내외 신문 보도를 통해 우리의 출동을 알고 있는

46)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1966, HB00094.

47) 서우인 인터뷰, 2018년 5월 28일, 선우가(일식당), 서울, 대한민국.

동포와 자유 우방국민들의 기대와 주시는 우리에게 멋있는 솜씨를 보여 줄 것을 거의 강요하고 있었다.⁴⁸⁾

187대의 트럭과 미군의 최대 지원이 이루어진 행군장경(行軍長徑)만 16km에 달하는 19번 도로를 240km 이동하는 “엄청난 행군의 위용”에 대해, 김진규는 경외와 함께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긴 행군의 길이에 “행군 중 만일의 경우 적절한 화력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몹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⁴⁹⁾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한국군은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독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국군 부대의 독꼬 파견은 여러 측면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본격적인 한·미 연합작전이었다. 이동 단계에서부터 파견 부대 지휘관인 3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헬리콥터에서 부대 이동을 지휘 및 통제하였고, 미 1기갑사단과 한국군 수도사단 26연대는 전차를 동원하여 한국군 파견부대의 측방을 엄호했다. 행군 당일 09시부터 미 3여단이 빨래이꾸에 도착한 한국군 3대대에 대한 작전 통제를 시작했다.⁵⁰⁾ 그리고 미 여단과 한국군 연대는 대대에 대한 원활한 작전 협조를 위해 상호 연락장교를 파견했다. 마지막으로 미 전차 소대가 3대대로 배속되었다.⁵¹⁾

한국군 파견 부대인 3대대에 주어진 책임 지역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독꼬 지역까지의 정면 13km, 19번 도로에서 아이퐁 계곡(이아드라 강의 일부)의 중심 13km에 이르는 정글 지대였다. 대대장 최병수 중령은 그의 원소속 사령관과 현 지휘관의 상이

48) 주월사, 「전투미담 및 전훈」, 1965. 10~1967. 11, HB02453.

49) 앞의 책.

50) 앞의 책; Carland, *Combat Operations*, pp.292~297.

51) 국방부, 앞의 책, 367쪽.

한 지시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해 그의 수기에서도 “본인이 출동 이전 채명신 사령관님으로부터의 지시 받은 작전지침은 이와[워커 장군의 지시와는-필자] 대조적으로 상이하였으니 현지 작전 대대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고충이 많았든[많았던-필자] 것이다”고 털어놓았다.⁵²⁾ 미 3여단장 워커 준장은 3대대에 작전지역 내 적의 가능한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4, 5명 단위의 감시초소를 연결해 차단선을 설정하고, 남은 병력으로 탐색격멸 작전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적 발견 시에는 한국군 부대가 포병 화력을 활용하여 적을 격멸하거나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을 고착시켜 붙잡아두길 원했다.⁵³⁾ 이는 전형적인 미군의 탐색격멸 방식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발견하는 적을 즉각적으로 타격하고 격멸할 수 있는 예비 부대를 운용해야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채명신은 3대대의 출병 전 최병수에게 중대전술기지의 구축 및 운용, 점진적인 탐색 지역 확대, 그리고 각 기지가 72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탄약과 식량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⁵⁴⁾ 즉, 한국군이 공격보다는 중대 기지의 구축을 통해 방어에 집중하면서 책임 지역을 통제할 것을 원했던 것이다.

독꼬 지역 도착과 동시에 3대대는 독꼬에서 8km 남쪽에 위치한 뿔래이 기라오 끌라 마을의 동쪽 부근에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제1야전군 사령관 라슨은 이 광경을 “[한국군] 대대는 도착하면서 세 개의 중대 기지(Outpost)로 쪼개져 기지(Base)를 바탕으로 모든 방향으로 소규모 단위의 정찰을 포함한 작전에 착수하였다”고 묘사하였다.⁵⁵⁾ 대대가 중대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

52)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최병수 증언, 1978년 4월 28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79쪽.

53) 앞의 책.

54) 앞의 책, 366쪽.

55) Stanley R. Larsen, *Vietnam Studi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pp.140~141.

자, 워커 여단장은 최병수에게 그의 지시에 따른 전투 임무 수행을 지시하였다. 미 지휘관의 지시에 대한 최병수의 결정은 “우선 우리 사령관님의 지침에 기준을 두고 여단장의 개념을 살펴보는 방향”으로서 이는 주월사령부의 “사단 전술개념을 근간으로 임무를 수행하되 작전통제권자와 충분히 협조하라”는 그의 애로사항 보고에 대한 사단의 회신을 반영한 결과였다.⁵⁶⁾ 이에 최병수는 먼저 감시초를 연결하는 차단선을 운용하는 대신에 세 곳의 다른 지역에 중대 기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각 중대에 매일 두 개의 소대로 주야간 매복을 실시하고 종종 중대급 규모로 수색 및 정찰을 실시하라는 작전지침을 하달하였다.⁵⁷⁾ 매복작전을 통해 대대는 기지를 건설한 이후 각 중대가 지역 내에 감시초를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는 두 개 소대가 중대 책임 지역에 매복을 나간 것이었고, 이는 워커의 지시를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었다.⁵⁸⁾ 동시에 한국군 중대는 워커의 탐색 명령에 의거 매일 정해진 구역에 대한 수색 및 정찰 활동을 실시하여 미군 측에 적을 찾아 격멸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이는 채명신의 지시를 우선시하면서도 워커에 불복종하지 않으려는 최병수의 절충안이었다. 최병수는 중대 기지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적을 찾기 위한 수색 및 정찰 활동을 지시했으며, 워커의 명령인 탐색격멸 작전을 따를 수 있게끔 준비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최병수는 워커로부터 기본 휴대량만을 비축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최소한 대대가 3일을 지탱할 수 있는 탄약과 보급 물자를 미군으로부터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김진규 포대장은 미 여단의 기준량은 포 한 문에 150발이었기에 주월한국

56) 「전투상보 제41호:독포전투」, HB00094; 국방부, 앞의 책, 366쪽.

57) 「전투상보 제41호:독포전투」, HB00094.

58) 앞의 책.

군사령부의 기준량인 105mm 포에 대한 450발의 탄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그는 두 가지 상이한 지침 사이에서 가능한 많은 포탄을 비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⁵⁹⁾ 결과적으로 3대대는 주월사령부의 지침에 맞는 충분한 탄약을 확보할 수는 없었지만, 미군의 지침보다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었고, 워커로부터 전투 개시 두 시간 안에 충분한 양의 포탄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도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3대대는 한 달에 걸친 일일 수색 및 정찰 작전에서 적과 조우나 격멸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실 대대는 파견 이후 독꼬 전투 전까지 총 1,437회의 수색 정찰과 385회의 매복과 같은 소규모 작전을 실시했다.⁶⁰⁾ 성과없는 한국군에 대해 독꼬 지역을 순시하던 MACV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은 “[단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캄보디아 국경일대에 머물고 있다”로 평가했다.⁶¹⁾ 3대대 9중대장 이춘근 대위는 그의 중대가 7월 27일 11중대와 교대해 독꼬로 전환된 이후 두 개 소대는 정찰과 매복을 보냈고 한 개 소대는 중대 기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초 이춘근은 3일 동안 기지 내에 엄체호를 구축하는 등 11중대로부터 인수한 중대 기지를 보강할 것을 지시하였다.⁶²⁾ 한국군은 주로 야전삽을 이용하여 기지 보강을 했으며, 이는 그들의 원래 책임 지역 내에서 공병의 지원을 받았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었다. 이에 한 참전자는 “소대장님으로부터 방어 구역을 할당받았다. 비록 재료는 부족하고 도구는 없으나 지금까지 익혀온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멋있는 진지를 구축하라는 소대장님의 지시를 머릿속에 되새기며 야전삽을

59)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60) Carland, *Combat Operations*, p.297;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61) General Westmoreland's Historical Briefing, 17 July 1966, Reel 7, Papers of Westmoreland (microfilm), VNCA.

62)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들었다”고 회고했다.⁶³⁾

워커 준장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국군의 기지 구축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워커는 9중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군 중대가 본연의 임무인 수색 정찰을 소홀히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 한가하게 기지 구축이나 하고 있다며 이춘근 중대장을 꾸짖었다.⁶⁴⁾ 당시 3대대 11중대의 1소대장이었던 표명렬 중위는 9중대의 기지 안의 엄체호 건설은 기지를 계속 이동해야 하는 기동 작전이라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이었다며, 미군 병사들이 “호랑이(맹호부대)가 이빨이 다 빠져 두더지처럼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고” 설명했다.⁶⁵⁾ 그러나 9중대의 전술 기지는 이윽고 벌어지는 실제 전투에서 그 가치와 효용성을 증명했다.

8월 10일 22:40분, 약 700명에 달하는 북베트남 정규군 부대가 9중대 기지를 공격했다. 최초 지뢰 폭발 소리를 중대원들은 이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춘근 대위는 경계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배속된 미군 전차 소대에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출 것을 지시하였다. 그제서야 중대는 적 부대가 아군의 기지를 습격해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⁶⁶⁾ 당시 이틀간 연속된 수색 정찰에 따른 피로로 대부분의 중대원들이 취침 중이었기에, 적의 공격은 한국군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다. 실제로 독꼬 전투에서 발생한 아군 피해의 90퍼센트는 전투 시작 후 10분 동안의 혼란 속에서 주로 적의 박격포 공

63)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64) 이춘근 증언, 1978년 11월 29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84쪽.

65) 표명렬, “상식에 어긋난 ‘참호’가 병사들을 구하다.” 『오마이뉴스』, 2006년 9월 2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1161

66)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미군의 탱크 소대 5대 전차는 1966년 7월 11일 중대에 배속되었다.

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⁶⁷⁾ 9중대원 김홍기 하사는 “이번엔 총성이 아닌 적의 중화기 박격포탄이 아군 진지에 난타되었다. 우리들의 가슴은 거의 마비상태가 되었었다”고 이야기했다.⁶⁸⁾ 적의 기습 공격에 대해 중대원들이 즉각적으로 전투 준비는 했지만, 9중대에서는 전투 공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최초 발생한 공황과 혼돈 속에서 중대를 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중대장을 비롯한 지휘자의 리더십과 평소 강한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된 중대원들의 정신과 육체적 준비상태에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중대원은 기지 방어 전투에서 적의 공격에 맞서 결연하게 싸웠다. 특히 중대는 과월 제1진으로서 제대 단위로 과병을 왔기에, 그들은 엄격한 규율과 함께 강한 응집력을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 개개 중대원들 모두가 포병 화력유도 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훈련이 잘되어 있었다.⁶⁹⁾ 한 예로 소총수인 박재형 병장은 적 포탄 때문에 다른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스스로 신속하게 포병 화력을 유도했다. 그의 화력 유도는 포병 관측장교 한광덕 중위의 최초 요청보다 3분이나 빨랐던 것으로, 이에 따른 적에 대한 포병 화력의 타격은 “적의 최초 공격 기세를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⁷⁰⁾

둘째, 이 전투에서 장교와 분대장 이상의 부사관은 그들의 리더십을 증명했다. 한 전투 수기는 이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 뒤 별안간 요란한 기관총 소리에 눈을 부비며 총과 철모를 쓰고 진지 투입을 하는 순간 적의 박격포가 수없이 진내에 떨어져 뿔

67)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68)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69) 「전투상보 제41호: 독꼬전투」, HB00094.

70) 북극성동창회, 『화랑의 십자군』, 1967, 216쪽; 국방부, 앞의 책, 375쪽.

몇 전우들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그 외는 모두 두려움에 갈피를 못 잡을 때 소대장님은 적에게 사격을 해야한다고 고함을 벽력같이 질렀다. 정신을 가다듬고 소대장의 지휘에 따라 진지 배치를 완료했다. 그리고 적정을 살폈다.⁷¹⁾

또한, 전투 초반 중대장 이춘근 대위의 참호에서의 “싸울 수 있는 모든 대원들은 모두 나서라, 진지를 사수하라. 중대장 이하 모두가 육박전을 감행한다”와 같은 외침은 중대원들이 전투에의 결의를 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⁷²⁾ 이처럼 지휘자들의 리더십은 중대가 초반의 공황을 잘 극복하고 싸울 수 있는 태세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초의 혼란을 딛고 방어 태세를 갖춘 9중대는 북베트남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격퇴했다. 대대의 포병 화력 지원 이외에도 배속된 미 전차 소대와 한국군의 박격포 및 기관총 소대 또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초 공격 후 거의 3시간이 지난 새벽 2시쯤에 북베트남군의 공격은 눈에 띄게 약화 되었고, 기지의 거의 모든 곳에서 교전은 잠잠해졌다. 5시 40분경 남쪽으로부터 2소대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적의 최후 기도를 좌절 시킴으로써 중대는 최종적으로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⁷³⁾ 전투 결과 한국군은 무려 5배나 많은 북베트남 정규군을 패퇴시켰다. 미국 공간사에 따르면 한국군은 최소 197명의 북베트남군을 사살한 반면 7명을 잃었을 뿐이었다.⁷⁴⁾

독꼬 전투는 한국군 기지가 비정규군인 베트남이 아닌 북베트남 정규군의 습격을 받아 일어난 전투였다. 대규모 적의 야간 기

71)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72) 국방부, 앞의 책, 376쪽.

73)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74) Carland, *Combat Operations*, pp.298~299.

습 공격에도 9중대의 전술 기지는 붕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교전 기간 내내 적을 압도했다. 미군 역시 한국군의 엄청난 승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투 다음 날 아침 6시 10분, 워커 준장이 기지를 방문해 최병수 대대장에게 “이 어마어마한 전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북베트남군의 시신을 묻지 말 것을 지시하였을 정도였다.⁷⁵⁾

독꼬 전투는 논란의 여지없이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여겨졌다.⁷⁶⁾ 그런데 승리의 핵심요인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측에서 다소 상이한 관점을 제시했다. 미군은 화력지원, 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의 우수성을 주된 성공요인으로 꼽았던 것이다.

한국군 전투상보는 가장 먼저 “한국군 방어 개념의 우수성”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성공 요인은 사단의 방침으로서 최초부터 강조 실시하여 온 방어 개념의 우수성에 있음”으로 설명한다.⁷⁷⁾ 다음으로 “가용한 방어 수단의 협조와 통합에 성공”, “조기 발견”, “우수한 포병 화력 운용”, “각개 병사의 과감성”을 성공 요소로 들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베트남 전쟁 공간사는 독꼬 전투를 “화력에 의한 확실한 승리”로 규정지으면서, “이 전투의 지원을 위해 미국과 한국군 기지로부터 포병의 고폭탄이 1,900발이나 발사되었다”고 강조한다.⁷⁸⁾ 물론 한국군 전투상보에서도 포병 화력 운용을 성공 요인의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조명탄과 고폭탄이 적진에 명중하였고 조명탄으로 인해 격전지는 개미새끼라도 보일만큼 밝았다”와 같은 한 병사의 진술처럼 화력 지원과 야간 조명탄이 그들을 살려

75)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76) 「맹호 240명에 무공훈장」 『동아일보』 (1996. 8. 25.); 「존슨이 달아주는 미 은성 무공훈장」 『경향신문』 (1966. 10. 28.). 독꼬 전투에 참가한 240여 명 전원이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77)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78) Carland, *Combat Operations*, pp.298~299.

웠다는 미군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의견이 있었다.⁷⁹⁾ 실제로 압도적인 화력이 공격하는 적을 충분히 약화시켰기에 9중대는 두드러진 백병전 없이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독꼬 전투의 성공은 위의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군 측의 한 문서에서 “작은 동맹국 부대[한국군-필자]가 단호하게 방어하는 동안 포병과 전차에 의한 계속된 화력이 적을 찢어놓았다”로 기술하듯, 한국군의 승리는 견고하고 끈질긴 기지 방어와 화력 지원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⁸⁰⁾ 만약 한국군 전술 기지의 튼튼한 방어와 사전에 잘 준비된 화력 협조 개념과 계획이 없었다면, 전투에서 화력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9중대원들도 위급한 혼돈의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력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한국군 기지는 압도적인 적의 공격에 결국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튼튼한 기지와 월등한 화력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각개 중대원들의 전투 의지와 공격 정신 그리고 평소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된 전투 준비가 없었다면 중대는 결국 패퇴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 방어개념의 우수성을 설파하면서도 한국군 전투상보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너무나 기지 방어에 과중한 나머지 작전이 소극화하는 것은 필히 경계하여야만 될 일이나, 모든 군사작전의 첫 요건은 기지의 방호 및 확보라는 근본 원칙은 변함없는 것이며 더욱이 적정이 불명한 지역 내에서 견고한 기지의 중요성은 일층 더 뚜렷하게 되는 것임.⁸¹⁾

79) 「전투미담 및 전훈」, HB02453.

80) Project CHECO Southeast Asia Report, “Operation Paul Revere / Sam Houston,” 27 July 1967, a485207,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DTIC).

81) 「전투상보 제41호:독꼬전투」, HB00094.

이러한 서술에는 중대전술기지의 방어 능력에 대한 주일사령부의 우려가 담겨 있다. 비록 전투상보에서는 독꼬 전투를 한국군의 전투 능력을 만방에 과시한 중대 방어 전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결론 짓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 전투 수행 간 발생한 문제점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이 새벽 2시 이후에도 계속적인 과상공격을 감행했다면 9중대는 붕괴됐을 것이다. 한국군 포대의 보유탄약은 다 떨어져 갔고 미 3여단에 요청한 긴급 탄약 추진은 야간의 기상상태로 불가능했으며, 9중대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둘째, 전투 당일 중대가 야간 매복과 청음초를 운용하지 않아서 적의 기습을 쉽게 허용했다. 셋째, 개인호에 새롭게 투입된 병사의 화기가 원래 배치된 병사의 화기와 다를 경우, 탄종의 차이로 인해 사격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넷째, 중대장은 서쪽으로 지향되고 있었던 적의 주공 방향을 남쪽으로 잘못 인식했다. 이는 전투 중에 소대장을 잃은 남쪽을 방어하던 2소대가 적 규모를 과장해서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각 소대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⁸²⁾

이처럼 전투 과정 간에 한국군에게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북베트남군은 더욱 많은 실수를 범했다. 전투상보에서는 한국군의 방어 상태와 지형을 놓고 볼 때 적의 주공 방향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적 주공 방향이 한국군의 사계가 가장 양호한 평탄한 개활지였기에 중대가 격퇴하기에 용이했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북베트남군이 대전차 무기를 준비했음에도 한국군 중대에 배속된 전차를 제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적 박격포 초탄 중 많은 양이 불발탄이었다. 마지막으로 전투상보는 북베트남군이 중대의 기지 방어를 뚫을 여러 차례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았

82) 앞의 책.

다.⁸³⁾

위와 같은 독꼬 전투에 대한 내부 분석과 평가를 고려해볼 때, 한국군의 성공은 결코 필연적이지 않았고, 여기에는 운이라는 요소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성공의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됐을 경우 중대전술기지는 적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전투상보는 북베트남군이 한국군이 수색 및 정찰 작전으로 기지를 비웠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중대 기지를 공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9중대가 기지를 비운 이틀 동안 대대의 예비였던 11중대의 한 개 소대와 9중대 배속의 박격포 그리고 기관총 소대가 기지를 지키고 있었다.⁸⁴⁾ 비록 적 습격 당일 9중대원 대부분이 취침 상태였지만, 운 좋게도 중대의 모든 인원이 추가적인 배속부대와 함께 기지 방어에 돌입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개 소대를 매복에 내보내지 않은 중대장의 규정을 어긴 독단적인 결정—증언에 따르면 이춘근 대위는 전투가 일어나던 당일 밤 매복을 보내라는 대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은 결과적으로 전투력 측면에서 기지 방어에 도움을 주었던 셈이다.⁸⁵⁾

이처럼 주월한국군사령부 내부에서 독꼬 전투는 그 결과에 있어서 100퍼센트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전투였다. 한국군의 ‘눈부신’ 성공은 중대 전술기지 개념에 대한 미군의 비판적인 평가처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독꼬 전투의 승리에는 중대전술기지의 자체적인 방어가 지닌 위험성과 한계가 도사리고 있었다.

83) 앞의 책.

84) 앞의 책.

85) 이춘근 증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85쪽; 북극성동창회, 앞의 책, 216쪽.

4.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이상과 현실

가.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딜레마

주월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를 운용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 모두에서 성공을 추구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이상과의 괴리에 직면하였다. 전투부대 차원에서 방어를 준비하고 수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중대 기지의 주요 기능인 평정작전을 실시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은 한국군의 평정작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술이었다. 1967년에 작성된 지덕건 중령의 연구는 한국군 전술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을 중대전술기지로 꼽고 있으며, “3만여 명의 전투병력으로 그 넓은 월남 땅을 확보 유지하고 그 많은 주민을 보호해 나가자면 불가피한 기지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한다.⁸⁶⁾ 이를 위해 각 중대는 평정 노력을 위해 지역을 옮겨 다녀야 했다. 한국군은 한 지역이 평정되면 그 지역을 남베트남의 민병대(PF, Popular Force)나 지역군(RF, Regional Force)에 넘기고 새로운 평정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이다.⁸⁷⁾ 따라서 평정작전을 지향한다면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고지에 위치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요새여서는 안됐다. 오히려 한 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II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86) 합동참모대학 중령 지덕건,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당성 여부」, 1967, HB02032.

87) 『월남전 종합연구』, 740~743쪽.

주민 통제가 용이하도록 마을과 충분히 가까운 위치에 구축되어야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군은 책임 지역 내 평정 지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군 책임 지역은 1965년에는 1,535km²였던 면적이, 1966년에는 4,470km², 1967년 6,800km²로 확장되었다.⁸⁸⁾

평정작전 지원이라는 전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에 더해서 중대전술기지는 적 연대급 규모 부대의 공격에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기지가 되어야 했다. 게다가 기지에는 적을 기지로 유인해서 격멸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까지도 요구되었다.⁸⁹⁾ 이에 따라 중대전술기지는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대응 및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당시 각 중대의 이상적인 방어 지역 넓이는 중대가 보유한 81mm 박격포의 사정거리를 고려하여 16km²였으며, 상급부대의 105mm 포병 화력의 지원을 고려하여 최대 90km²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다.⁹⁰⁾

문제는 많은 중대가 그들의 방어 가능 지역 이상의 전술책임 지역을 부여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월사령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보낸 문건은 9사단 소속 대부분의 중대가 능력 이상의 전술책임지역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⁹¹⁾ 1967년 8월 9사단의 각 중대는 가장 넓은 곳 166km², 가장 좁은 곳 13km², 평균적으로는 44km²의 면적을 책임져야 했다.⁹²⁾ 여기에 폭이 좁고 도로에 연하여 길게 펼쳐져 있는 9사단의 전술 책임 지역은 그 중심이

88) 책임지역 내의 주민 수 역시도 1965년 310,000명, 1966년 970,000명, 1967년 1,200,000으로 증가했다.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 전투제원』 (사이공:주월사), 1969, 1쪽; 『월남전 종합연구』, 151쪽.

89)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당성 여부』, HB02032.

90) 「전술책임지역 넓이에 대한 자료」, 1967. 8. 26.,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사 교리 발전 자료』, 1967, HB01684.

91) 앞의 책.

92) 앞의 책.

매우 길었기에 적의 침투에 따른 방어에 매우 취약했다. 손장래 대령은 “우리의 240km라는 지역을 확보하고, 주민을 안정시키고, 1번도로를 개통시켜서 물건들이 남북으로 왕래하려면 많은 군인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⁹³⁾ 따라서 “최소한도 1개 중대가 10km [중심을-필자] 지켜야” 됐던 것이다.⁹⁴⁾

소총 중대를 포함한 각 예하 부대가 방대한 지역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했기에 평정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은 부담되는 과업이었다. 제9사단이 1966년 후반에 베트남에 도착하면서, 주월 한국군의 총병력이 1967년에 49,000여 명에 이르렀지만, 전체 한국군의 병력 증가에도 각 중대가 담당하는 책임 구역은 여전히 방대했다. 그만큼 한국군이 담당하는 전체 책임 지역 역시 확장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대전술기지는 매우 넓은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고, 전체 한국군을 놓고 봤을 때 이는 “1개 전투 중대가 70여 평방km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셈”이었다.⁹⁵⁾ 지덕건은 그의 논문에서 “현재 한국군의 전술책임지역은 청룡, 맹호, 백마의 전투 병력만론 한계에 달할 만큼 넓어졌다”며, 기지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⁹⁶⁾

더욱이 독꼬 전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적이 기지에 대해 준비된 공격을 가할 경우, 성공적인 방어는 교전에서의 승패를 결정하는 어느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는 없었다. 여기에는 지형의 이점, 기지의 튼튼함과 화력의 지원, 방어계획, 병력의 교육과 사기, 훈련 정도, 전투 의지, 그리고 지휘자들의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지역을 책임지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마을과 가

93) 손장래 증언, 1968년 9월 2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14~115쪽.

94) 앞의 책, 115쪽.

95)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당성 여부」, HB02032.

96) 앞의 책.

갑거나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기지를 구축한 나머지 방어를 위한 지형적 이점을 포기하거나, 병력이 기지를 떠나 소규모 전투작전을 하여 기지를 지킬 방어 능력이 부족해지는 등, 중대가 평정작전에 초점을 맞출수록 기지의 방어는 자연스럽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중대전술기지가 적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발생했다.⁹⁷⁾ 한국군의 가장 성공적인 대규모 소탕작전으로 평가받는 오작교 작전(1967. 3. 8 ~ 5. 31) 중 발생한 두 가지 실패 사례가 그것이다. 1967년 4월 10일, 9사단 28연대 11중대는 적의 기습 공격으로 12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34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 달여 뒤인 5월 16일, 수도사단 26연대 2중대는 적의 공격에 18명의 전사자 포함 58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기지가 적에게 유린됐다.⁹⁸⁾ 비록 이 사례는 당시 세간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월한국군사령부 내부적으로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주월사령부는 가장 먼저 중대원들의 해이해진 규율과 전투에 대한 준비 부족을 실패 요인으로 여겼다. 두 기지 모두 한국군의 자만과 방심에서 유린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방부 공간사에서는 오작교 작전을 포함한 연속적인 성공 속에서 한국군은 베트남이 감히 한국군을 공격해 오지 못할 것으로 여기며 적을 과소평가했다고 설명한다. 최초 파병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긴장이 사라지고 병사들의 규율이 느슨해진채 그동안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즉, 한국군은 병사들의 사기와 규율의 문제를 이번 실패의 주요인으로 여겼다.⁹⁹⁾

그러나 이 시기 한국군은 병사들의 사기와 규율 또는 군기로

97) 『월남전 종합연구』, 740~743쪽.

98)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 2(서울:국방부, 1981), 499쪽.

99) 앞의 책, 508~509쪽.

상쇄시키기 어려운 중대 기지 개념의 취약점에 직면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지가 도로나 마을 근처와 같은 전략 지향적인 위치에 건설되어 전술적 이점을 포기할 경우 방어에 취약할 수 있다. 둘째, 사전에 경보나 경고가 없을 경우 적의 기습 공격을 받기 쉽다. 셋째, 한 개 중대가 방대한 지역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 넷째, 중대전술기지가 자주 이동하게 되면, 기지 내의 참호나 진지가 잘 구축되지 못하고, 상급 부대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반대로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적에게 기지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두 교전을 조사했던 주월사령부 교리 발전부의 김치호 대령은 중대전술기지 운용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경계 소홀을 한국군 중대의 실패 요인으로 꼽으면서, “경계가 소홀한 상태 하에서, 우리 병사 모두가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로 평가했다. 둘째, 11중대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경계 소홀 이외에도 중대전술기지의 위치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평지에 중대 기지가 있었고 도로가 기지 가운데로 통과하였으며, 도로 옆에는 망루 하나만 세워놓고 통행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실정이었으니, 기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대기지 내의 상황을 훤히 볼 수 있어 기습에 용이했다”고 평가했다.¹⁰⁰⁾ 이어서 김치호는 “2중대는 11중대 기습 때보다 비참했다. ... 제2중대는 사람들이 송장같이 자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 것처럼, 베트공이 호 속에, 병커 안에까지 들어와 수류탄을 던지고 설치했다. 병커 안에까지 들어왔으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지경으로 당했다”며 기지의 유린에 대한 처참함을 회고했다. 김치호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으로 주월사령부가 크게 당황했으나 병사들의 사기 문제도

100) 김치호 증언, 1980. 7.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42쪽.

있고 해서 문제를 많이 감추었으며, 성공한 것은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으나 실패는 감추어진 부분이 많다고 회고했다.¹⁰¹⁾

주월사령부는 이 일을 계기로 예하 부대의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중대 기지의 방어 능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기지 점검 결과는 중대전술기지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1967년 5월, 9사단의 중대 기지 점검 보고서는 “방문 부대 중 대부분의 중대 기지는 내륙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들 기지는 주민과 지역의 보호보다는 적의 침투를 봉쇄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었음”으로 결론내렸다.¹⁰²⁾ 사실 이는 중대전술기지는 평정작전을 위해 마을 가까이 위치해 있어야 하고 고지와 같은 전술적 이점이 전략적 고려사항보다 위치 선정에 우선시는 안된다는 주월한국군 전술 교범의 지침과는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사단 내에 있는 총 24개의 전술 기지 중 12개는 평지에 12개는 고지상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¹⁰³⁾ 보고서는 각 중대 기지가 방어에 적합한 위치에 있고, 조기 경보, 장애물 설치 및 화력 지원 같은 방어 수단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축성 상태와 병사들의 군기와 사기와 같은 기지의 방어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작성되었다. 결국, 기지 점검의 목적은 중대전술기지의 평정 노력보다는 기지의 방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방어는 주월한국군에게 민감하고 심각한 사항이 되었고, 특히 지휘관에게는 지휘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1967년 한 달 전에 큰 피해를 입은 11중대의 상급부대장인 3대대장으로 부임한 서우인 중령은 당시 11중대는

101) 앞의 책, 142~143쪽.

102) 「중대 전술 기지 방문 결과」, 1967. 5. 23.~25., 주월사, 『중대전술기지자료』, HB01685.

103) 앞의 책.

방어의 실패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대대의 사기 역시 크게 저하되어 있었기에, 대대원들의 전투 의지를 회복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또한 서우인은 지휘관 입장에서 예하 중대가 그들의 기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백퍼센트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¹⁰⁴⁾

결론적으로, 중대전술기지가 평정작전에 초점을 두면서 방어 임무까지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 모두를 달성하고 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두 가지 기능의 유지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동반됐기 때문이다. 최소 희생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다는 주월한국군의 이면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최대 성과’는 중대전술기지를 운용함으로써 성공적인 평정작전을 수행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었기에 이는 참전의 명분 및 정당성 확보에 가까웠다. 더 나아가 해당 지휘관 입장에서 평정작전의 성과와 그 노력을 측정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의 내부 목표 중 ‘최소 희생’은 기지를 잘 방어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상자를 초래하지 않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지휘관에게 있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성공적인 평정작전을 수행하여 최대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군의 중대 기지 운용은 평정작전보다는 기지 방어 임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주월한국군은 연합군이 대규모 전투작전을 활발히 펼쳤던 1967년부터 중대전술기지의 공세적 성격을 대외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기지가 공격적이고 적극적 목표를 지닌 정규전 형태에도 적합한 전술이라는 주장이었다. 16개의 미군 관찰단(observer) 팀이 각각의 한국군 중대에 파견되어 전투 수행을 관찰했던 오작교

104) 서우인 인터뷰, 2018년 5월 28일, 선우가(일식당), 서울, 대한민국.

작전에서 한국군 전술과 소규모 전투기술이 미군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군은 중대 기지를 공세에 효용성 있는 전술로서 홍보할 수 있었다.¹⁰⁵⁾ 1968년 1분기 주월사령부 훈령에서는 “이 개념은 근본 의의가 공세적이며 방호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중대전술기지의 성격을 명시했다.¹⁰⁶⁾ 이어서 1969년 1분기 훈령은 전술기지의 목적에 가장 먼저 “공세 작전의 기지”를, 마지막인 다섯째로서 “적의 주력을 유인 섬멸하기 위한 기지”로 제시했다.¹⁰⁷⁾ 중대전술기지가 공세 작전의 기반이 될 수 있고, 적이 기지를 공격하게끔 유도하여 적을 격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¹⁰⁸⁾ 이에 따라, 한국군 기지는 적의 전면 공격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견실해야 했다. 결국,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에 있어서 기지의 성공적인 방어가 평정 노력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와 중대전술기지의 요새화

1969년은 미국이 주도했던 베트남 전쟁의 전환기였다. 미국은 이미 1968년 중반부터 전쟁의 명예로운 종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68년 1월 31일 시작된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의 구정 공세(Tet Offensive)는 비록 미군과 연합군의 반격에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북베트남은 미 국민과 정부의 전쟁 의지를 꺾는 전략적 대성공을 거두었다. 국내의 강력한 전쟁 반대 여론에 직면한 미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는 MACV 사령

105) I Field Force Vietnam,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3 May 1967, AD390963, DTIC.

106) 주월사, 『훈령』, 1968. 1., HB02153.

107) 주월사, 『훈령』, 1969. 1., HB02154.

108)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당성 여부』, HB02032;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VNCA.

관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C. Westmoreland) 대장의 20만 추가 병력 파병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확전을 포기했다. 같은 해 5월 10일, 미국 정부는 북베트남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전의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을 시작하였다.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는 1969년 초 닉슨(Richard Nixon) 행정부의 미군 철수 정책으로 본격화되었다. 베트남화는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남베트남인이 전쟁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 실패의 여파로 존슨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일찌감치 포기한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닉슨이 1969년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면서 주월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가 시작되었다. 이에 1968년 최대 54만 8천여 명이었던 병력이, 1969년 말에는 47만 5천, 1970년 말에는 34만 4천, 1971년 말에는 15만 6천, 1972년 말에는 2만 9천 명으로 감축되었다.¹⁰⁹⁾ 미군의 철수는 앞으로의 전쟁 수행의 주체가 미군에서 남베트남군으로 변화됨을 의미하였다.¹¹⁰⁾ 따라서 베트남화의 성공은 남베트남군이 자기 힘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느냐에 있었다. 다만 미국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노력과 자원을 남베트남군의 재건과 전력 증강에 쏟다 보니, 한국군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

1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남 참전 통계」 1972, HB01620; Guenter Lewy, *America in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147; James H. Willbanks, *The Battle of An Loc*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p.10; Graham A. Cosmas, *The Joint Command in Years of Withdrawal, 1968-1973* (Washington, D.C.: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2006), p.167.

110) 미 지상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1971년에서 1972년 사이에 기존의 남베트남군의 한 개 군단이 주둔하던 군단 책임 지역(Corps Tactical Zone, CTZ)이 두 개 군단도 주둔 가능한 군사지역(Military Region, MR)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철수하는 미 지상군을 대신하여 남베트남군이 군사지역의 핵심 전력이 되었다. 합참 작전국, 「주월사 수시보고」, 1970, HB01854.

로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베트남 전쟁 후반부 전쟁의 베트남화가 진행되면서 한국군의 전쟁 수행 역시 더욱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1969년 5월 새롭게 주월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세호 중장은 선제공격을 강조하면서 휴전을 앞둔 시기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군의 태도를 경계하고 저하되는 군기와 사기를 막고자 했지만,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미군을 비롯한 다른 연합군의 철수와 이에 따른 한국군 작전에 대한 지원의 감소 속에서, 큰 전투 없이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전황에서 한국군 작전 역시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 6월부터 1년간 베트남에서 수도사단 작전부사단장으로 근무했던 오윤영 준장은 전쟁의 베트남화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69년도부터 미국은 닉슨 독트린에 의거, 월남에서 군대를 점차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여 어느 나라 군대나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군도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작전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자체방어에 치중하였습니다.”¹¹¹⁾

특히 참전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면서 동시에 희생자를 줄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주월한국군의 소극적인 작전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 1970년 4월 9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세호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면서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더욱 증진하고 장병들의 인명피해를 보다 더 줄이도록 최대한 힘쓰라고 당부했다.”¹¹²⁾ 그러면서 현재의 전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기응변하는 새로운 전술 개발에 계속 노력하라고 지시했다.”¹¹³⁾ 이에 이세호는 1970년 9월 이세호는 언론에 “많은 소부대로 분산, 매복작전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주월 한

111) 오윤영 증언, 1983. 2. 17.,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713~714쪽.

112) 「박 대통령, 이 사령관에게 새 전술 개발 지시」 『동아일보』 (1970. 4. 9.), 1면.

113) 앞의 신문.

국군이 대규모 작전을 지양하고 소규모 작전을 수행하는 전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전술변경으로 작전을 전개”한 지난 한 달 동안 종전보다도 26퍼센트의 희생 감소와 30퍼센트의 전과 향상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¹¹⁴⁾

1971년 1월에는 정부가 한국군 철수계획을 발표했고, 실제로 1971년 12월 해병여단이 철수했다.¹¹⁵⁾ 철수를 앞둔 한국군은 추가적인 희생 없이 전력을 온전히 보전하며 주둔해야 했다. 주월한국군의 1971년 작전방침에는 “책임지역 내 적 침투 및 적 도발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역방어 책임체제에 입각한 소부대 작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¹¹⁶⁾ 또한 1971년 5월 5일 주월한국군사령부 방문 시 심흥선 합참의장은 적은 희생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라는 서울의 지침을 재차 하달했다.¹¹⁷⁾

소극적 작전수행은 중대전술기지 운용에서 평정작전 보다는 기지 방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특히 정부의 주월한국군 단계적 철수계획과 함께 작성된 1971년도 1분기 주월사령부 훈령은 이전의 훈령과는 달리 “전술기지는 전면 방어의 한 형태로서 적의 활동 중심지를 장악하여 적의 활동을 견제하고 책임지역내로의 적의 침투를 봉쇄하고 적 연대 규모 공격에도 지탱할 수 있도록 준비된 진지이며 우군의 포병 지원 거리내에 설치된 작전 기지”로만 기술한다. 중대전술기지의 두 가지 목적 중 하나인 평정작전 부분이 결여된 것이다.¹¹⁸⁾

다만 이를 가지고 중대전술기지의 평정작전 목표가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971년의 『작전예규』에서는 중대전술기지

114) 「주월 한국군 분산 타격의 새 전술」, 『동아일보』, 1970년 9월 16일, 5면.

115) 「연초기자 회견」 (1971. 1. 11.),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8면 1월편』, 대통령 기록관.

116) 주월한국군사령부, 「훈령」, 1971년 1분기, HB02156.

117) 이세호, 『한길로 삼켰던 내 조국』 (서울: 대양미디어, 2009). 469쪽.

118) 주월사, 「훈령」, HB02156.

의 첫 번째 기능을 공세 작전의 기지로 제시했으며, 위치 선정의 구비조건으로 ‘자체방어’에 초점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술 기지의 성격으로서 첫째, 공세 작전의 기지, 둘째, 수색 정찰 및 매복 작전의 기지, 셋째, 정보 수집 활동의 기지, 넷째, 민사 심리전 활동의 기지, 다섯째, 적의 주력을 유인 섬멸하기 위한 기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1969년과 1970년의 훈령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¹¹⁹⁾ 결국 1971년 훈령과 작전예규를 종합해볼 때, 평정작전의 목표 자체가 사라졌다기 보다는 이전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지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중대전술기지의 운용 목표에 있어서 평정작전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던 것이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 과월 1진의 중대장으로서 전쟁을 경험했던 수도사단 1연대의 작전 참모 이재태 중령의 1971년 10월 18일자 일기의 내용은 이 시기 중대전술기지 운용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즈음의 기지는 영구정착개념으로 만들고 있다. 도저를 수 십 일 동안 투입해서 기지 주변에 방벽을 쌓고 그 많은 인력과 자재를 들여 규모 있게 만든 진지...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옛날 우리들이 처음 왔을 때는 정착개념이 아니다. 지역을 평정하면 이동하고 이동해서는 또 평정한다. 나의 경우 중대장 12개월 동안에 8회나 옮겼다.¹²⁰⁾

이처럼 과거에 평정작전의 수단으로서 운용되던 중대전술기지가 이 시기 주로 기지와 부대원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1971년 수도사단에서 작성한 전술기지 점검 보고서에는 당시 기지

119) 주월사, 「작전예규」, 1971, HB01554.

120) 이재태, 『기슴을 뚫고 간 적탄, 군복은 붉게 피로 물들고』 (서울: 전통속보 문화사, 2014), 389쪽.

가 운영되던 현실이 잘 드러난다. 첫째, 점검의 목적은 “현재 중대 전술기지의 전술적 운영 및 견고성을 검토하여 취약점을 발견, 이를 보완하는데” 있었다. 둘째, 방침은 기지의 “자체방어능력(견고성)”을 확인하고, 소규모 기지는 “편성의 적합성”, 기지 강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재의 필요성 여부”에 있었다.¹²¹⁾ 점검 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점검은 기지의 방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의 후반부에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는 이동하지 않는 영구적인 요새가 되어갔다. 물론 한국군은 이 시기 한국군 지역은 100퍼센트 평정이 되었기에 더 이상 평정작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한국군이 베트남에 싸우러 오지 않고 그들의 책임 지역만 방어만 하러 왔다는 초창기 미군의 비판이 전황이 변한 이 시기에 현실화되었다.

5. 맺음말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은 베트남 전쟁의 정규전과 비정규전 모두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독특한 전술로 이해된다. 기지는 베트콩과 민간인을 분리하고 민사작전을 위한 한국군 평정 전략의 핵심 개념이고, 동시에 우세한 적으로부터의 방어와 함께 공세 작전의 발판도 되어야 하는 전투 능력도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논했다. 주월한국군은 중대전술기지 운용에서 이상적으로는 평정과 기지 방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했지만, 현

121) 수도사단 작전과, 「전술기지공통점검사항」, 1971, HB02013.

실적으로는 기지 방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대전술기지의 실제 효용은 주월한국군의 전쟁 수행에 몇 가지 함의를 던져준다.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에게 전술적 수단으로서 그 효용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이 책임 지역의 평정과 평정 지역의 확대라는 연합군의 목표와 동일한 전략 목표 하에, 그 방법에서는 미군의 탐색격멸과는 다른 소탕 및 확보의 개념으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군은 미군과는 다른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군의 추가 파병 등 한국군이 꼭 필요한 전황 속에서 미군과는 다른 한국군의 방법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위 상황에서 한국군이 독꼬 전투를 통해 기지의 전술적 효용성을 증명해보임으로써, 중대전술기지가 한국군의 대표적인 전술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대전술기지가 단순히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전술로 운용된 것만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파병을 통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면서 참전의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기기 위한 주월한국군의 이면적 목표가 있었다. 다만, 전쟁의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우선시될 수 있었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자 한국군 부대를 미군의 작전지역으로 파견한 독꼬 전투에서의 승리는 대외적으로는 기지 방어전의 성공사례였지만 한국군 내부적으로는 중대전술기지 방어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군은 평정작전에 집중할수록 그만큼 기지의 방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기지 운용의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평정작전을 통한 최대한의 성과달성보다는, 기지 방어에 실패하지 않음으로써 정치 및 군사적으로 더 민감하고

중요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명분 달성을 위해서 한국군은 제한된 평정작전을 통해 한국군 지역은 잘 통제되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주면 됐다. 그러나 그마저도 전쟁의 베트남화 이후 참전의 명분이 사라지고 전쟁 수행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결국, 전쟁의 후반부에 중대전술기지는 평정보다는 기지 방어를 위한 요새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수행 전체를 조망해볼 때,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은 한국군이 처한 정치적, 전략적, 군사적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논한 것처럼, 중대전술기지의 운용이 항상 원래의 이상대로 운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의 적극적인 주체로 남아 있던 동안, 중대전술기지는 한국군의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전술로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원고투고일 : 2021. 7. 4,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베트남전쟁, 주월한국군, 중대전술기지, 두코전투, 평정작전,
전략 및 전술

<참고문헌>

1. 사료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남 참전 통계」 1972, HB01620.
주월한국군사령부, 「전투미담 및 전훈」, 1965. 10~1967. 11, HB02453.
_____, 『주월사병력수준』, 1966.3~1967.6, HB02019.
_____, 「1966년도 주월한국군 작전개요 및 1967년도 전역계획 보고서」, 1967, HB02338.
_____, 「훈령」, 1971. 1, HB02156.
_____, 「작전예규」, 1971, HB01554.
_____, 『중대전술기지자료』, 1971. 1. 20, HB01685.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41호: 독꼬 전투」, 1966, HB00094.
수도사단 작전과, 「전술기지공통점검사항」, 1971, HB02013.
합참 작전국, 「주월사 수시보고」, 1970, HB01854.
합동참모대학 중령 지덕건,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의 타당성 여부」, 1967, HB02032.

2) The Vietnam Center & Sam Johnson Vietnam Archive(VNCA),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Message from Nha Trang to COMUSMACV, "Evaluation of ROK Forces," 25 January 1966, Folder 15, Box 2, Dale W. Andrade Collection, VNCA.

General Westmoreland's Historical Briefing, 17 July 1966, Reel 7, Papers of Westmoreland (microfilm), VNCA.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Military Operations Vietnam Primer: Lessons Learned, 21 April 1967, 43-44, Folder 1, Box 1, Stephen F. Maxner Collection, VNCA.

Memorandum for Record,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12 October 1967, Reel 11,
Papers of Westmoreland (microfilm), VNCA.

3) 기타

북극성동창회, 『화랑의 십자군』, 1967.

「연초 기자 회견」, 1971. 1. 11.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8면 1월편』, 대통령 기록관.

육군본부, 『월남전의 진훈』 1, 1966.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 소개』, 1967.

_____, 『주월군 전투제원』, 1969.

_____,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 1969.

_____, 「주월군 현황」, 1969. 12. 31, DA1417325,
국가기록원.

_____, 『월남전 종합연구』, 1974.

Field Manual(FM) 90-8 Counterguerrilla Operations.
Washington, D.C.:Department of the Army, 1986.

Project CHECO Southeast Asia Report, "Operation Paul
Revere / Sam Houston," 27 July 1967, a485207,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DTIC).

Sharp, Ulysses S. Grant and Westmoreland, William C.,
Report on the War in Vietnam, as of 30 June
196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2. 연구서

국방부, 『과월 한국군전사』 1-1, 국방부, 1978.

_____, 『과월 한국군전사』 1-2, 국방부, 1979.

_____, 『과월 한국군전사』 2, 국방부, 1981.

- 박경석,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59~240쪽.
- 박상혁,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대분란전 전략과 중심」, 『군사연구』 137호, 2014.
<http://doi.org/10.17934/jmhs..137.201406.39>
- 위태선, 「독코 전투의 고찰」, 『군사』 14호, 1987.
<http://uci.or.kr//G901:A-0001378923>
- 이세호, 『한길로 섬겼던 내 조국』, 대양미디어, 2009.
<http://uci.or.kr//G901:A-0006245432>
- 이재태, 『가슴을 뚫고 간 적탄, 군복은 붉게 피로 물들고』, 전통족보문화사, 2014.
- 정지환,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대게릴라전 연구 - 중대전술기치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29호, 2010.
<http://doi.org/10.17934/jmhs..129.201006.187>
-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06.
<http://uci.or.kr//G901:A-0006122906>
- 최용호,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05.
<http://uci.or.kr//G901:A-0005285433>
- Carland, John M. *Combat Operations: Stemming the Tide, May 1965 to October 1966*.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2000.
- Cosmas, Graham A. *The Joint Command in Years of Withdrawal, 1968-1973*. Washington, D.C.: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2006.
- Ewing Ott, David, *Vietnam Studies: Field Artillery, 1954-1973*.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 Kolton, Randy J., "Anticipation and Improvisation: The Fire Base Concept in Counterinsurgency Operation," Master's

- thesi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0.
- Larsen, Stanley R., Vietnam Studi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 Lewy, Guenter. America in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MacGarrigle, George L., Combat Operations: Taking the Offensive, October 1966 to October 1967.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8.
- Rasmussen, Ronald R. "ROK Operations in Central Vietnam," Military Review 48, no. 1, 1968.
- Westmoreland, William C., A Soldier Reports. N.Y.: Doubleday, 1976.
- Willbanks, James H. The Battle of An Loc,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3. 인터뷰 및 신문기사

- 박경석 인터뷰, 2018년 6월 2일, 자택, 대전, 대한민국.
- 서우인 인터뷰, 2018년 5월 28일, 선우가(일식당), 서울, 대한민국.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 2001.
<http://uci.or.kr//G901:A-0006018350>
- "Leading Teacher," Newsweek, no. 69, 10 April 1967.
- 『경향신문』,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Abstract)

The Ideal and Reality in Employing and Operating ROKFV's
Company Level Tactical Base during the Vietnam War
- Focusing on the Battle of Duc Co(1966) -

Shim, Ho-sub

Based on ROK's actual conduct during the Vietnam War, employing company level tactical bases was not a strategical feature in itself, rather it was a tactical one that followed ROKFV's strategic emphasis on its conduct of the pacification(stabilization) operations and the reality of the war. Although this tactical strategy was not always employed following its original ideal, which focused more on a strategic or operational level of the pacification, the company base as ROK's most important and unique tactical method remained so unabated for as long as ROKFV remained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war.

ROKFV had to pursue success in both unconventional and conventional war by adopting company tactical bases. However, it was not that easy for the troop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company base's main function of supporting pacification oper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conducting defensive operations centered on the tactical base. Despite the brilliant victory at Duc Co battle between Tiger Div. and North Vietnamese army, ROKs, internally, realized a limitation and risk of the self-defense of the company base. Considering the ROKFV's internal goal of maximum results with minimum casualties, not causing unnecessary casualties by defending the base well was more realistic and sensitive to the Korean troops than achieving maximum results by successfully pacifying local populations. As a result, a successful defense became a more important and realistic matter than a success in pacification efforts in terms of operating company bases. This tendency became more prevalent as the Vietnam War progressed and bases, indeed, became permanent fortifications in this period.

Keywords : The Vietnam War,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ROKFV),
Company Base, The Battle of Ducco, Pacification